

# SmartWhistle

## 윤리경영 Newsletter 2018년 11월호

### 1. 최근 동향 및 소식

- 文대통령, 오늘 반부패협의회 주재...8대 생활적폐 과제 논의
- 내달 3~14일 '반부패 주간'...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 국민권익위, 카타르와 반부패 분야 협력 강화한다
- 필리핀 '사치의 여왕' 이멜다에 최고 77년형 선고...체포영장

###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도요타] 도요타자동차의 상생경영

### 3. 청렴 위반 사례

- 기상장비 부품교체 사업 부당 추진
- 출장일수 과다 산정 및 여비 부당 수령

### 4. 지식마당

- [반부패 국제 동향] 미국 해외부패 방지법(FCPA)

### 5. Quiz

###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 최근 동향 및 소식

### 1. 文대통령, 오늘 반부패협의회 주재...8대 생활적폐 과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어 채용비리, 학사비리 등 정부가 마련한 8대 생활적폐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 4월 18일 이후 7개월만이다.

2차 회의에서는 권력형 적폐청산이라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 5년을 끌고 나갈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의 로드맵을 도출했다면, 이번에는 생활적폐로 방향을 좁혀 8대 이행 과제를 새롭게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소관부처별로 ▲채용비리 ▲사학비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갑질 ▲공적자금 부정수급 ▲기득권 세력의 부당한 사익편취 ▲재개발·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보험금 부정수급 ▲탈세 등 8대 생활적폐 과제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2차 회의 때 마련한 50대 세부 과제 가운데 생활적폐에 해당하는 8대 과제를 추려 이행방법 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9\\_000477681&clD=10301&pID=103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9_000477681&clD=10301&pID=10300)

### 2. 내달 3~14일 '반부패 주간'...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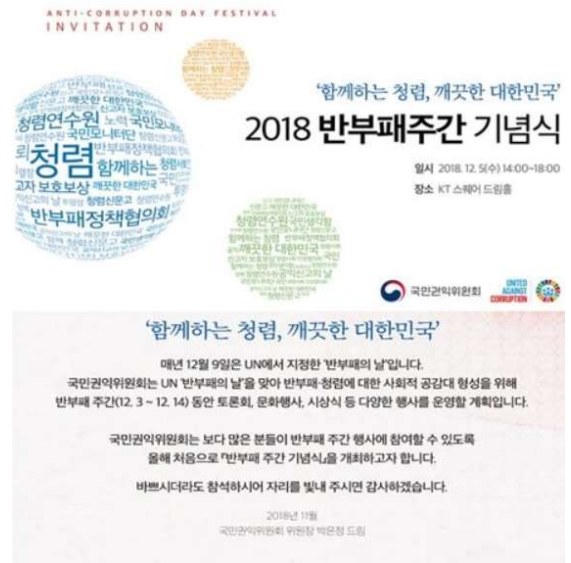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 3~14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 청렴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반부패 주간 기념식은 다음 달 5일 서울 KT스퀘어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서 권익위는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와 올해 중점 추진한 주요 반부패 사업의 성과를 발표한다.

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의 청렴도를 평가·발표해왔다.

권익위는 기념식에서 '공익신고의 날'을 선포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조율 중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3004570000?input=1195m>

## 최근 동향 및 소식

### 3. 국민권익위, 카타르와 반부패 분야 협력 강화한다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가 중동의 자원부국 카타르에도 전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과 ‘투명성·청렴성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모하메드 압둘라 알데하이미 주한 카타르 대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 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2017년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당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장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지표 개발 등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3년간 투명성·청렴성 분야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청렴도평가 지표와 평가체계 개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 이어 31일부터 3일간 카타르 대표단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관한 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비교적 청렴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카타르가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다.

[http://newsbrite.net/sub\\_read.html?uid=19132&section=sc40](http://newsbrite.net/sub_read.html?uid=19132&section=sc40)

### 4. 필리핀 '사치의 여왕' 이멜다에 최고 77년형 선고...체포영장



'사치의 여왕'으로 불리는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89) 하원 의원에게 법원이 9일 부패혐의와 관련해 최고 징역 77년을 선고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산디간바얀 반부패 특별법원은 이날 이멜다 의원의 부패혐의 10가지 가운데 7개 혐을 유죄로 판단하고 항목별로 징역 6년 1개월~11년을 선고했다. 모두 합치면 44년 7개월에서 77년형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멜다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멜다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5년 매토로 마닐라 주지사로 재직하면서 무려 2억달러(2천256억8천만원)를 스위스 재단에 옮긴 혐의로 1991년 12월 기소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돈은 스위스 은행 계좌에 가명으로 예치됐지만, 이멜다가 계좌개설 서류에 자신의 이름으로 사인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 필리핀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로레타 안 로잘레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뻐서 마구 뛰었다"고 환영했다.

[http://www.yeowonnews.com/sub\\_read.html?uid=8349&section=sc12#09J9](http://www.yeowonnews.com/sub_read.html?uid=8349&section=sc12#09J9)

## 윤리경영 실천 사례

### [도요타] 도요타자동차의 상생경영

#### 1. 기업 소개

도요타는 생산량 기준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이며, 매출액 기준 세계 12위 기업이다. 연간 천만 대 이상의 차를 생산한다. 그리고 매출액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일본 제1위 기업이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2위에 올라 있는 소프트뱅크보다 2배 이상 많다. 브랜드로 도요타(Toyota), 히노(Hino), 렉서스(Lexus), 랜츠(Ranz), 사이언(Scion)이 있다.

일본의 발명왕 도요타 사키치가 G형 자동방직기 특허권을 판 돈으로 그의 아들 키이치로가 1933년 도요타자동차제작소 내에 자동차부를 설치하면서 출발하였다. 1937년 자동차제조회사로 독립하였고, 지금은 주택, 금융, 정보통신 쪽에도 진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00년까지 ‘잃어버린 10년’ 동안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는 경제침체를 겪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도요타자동차는 원가절감 노력과 생산라인 협력업체와의 체계적인 분업과 상생경영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윤리기업으로 평가받는 도요타의 성공비결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꼽는 것이 바로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협력문화의 정착이다.

#### 2. 협력업체 및 소비자와의 성과공유

도요타자동차는 완성차 생산과정에서 자체 제조하는 비율이 2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차 협력업체와 ‘분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동차를 생산한다. 즉, 생산지역 내 소재·부품·조립 등의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도요타자동차를 생산해낸다. 따라서 분업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착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5년부터 도요타자동차는 이른바 ‘3:3:3’ 성과공유제 방식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방식은 납품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부품의 효율화를 이루어 원가를 절감할 경우 이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도요타자동차 본사, 중소기업체, 소비자 자격인하 등 3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도요타자동차는 원가 절감,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도록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가 발생하면 고르게 나누는 제도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1960년 도요타자동차는 원가연동 납품가격제도를 실시하였다. 원가연동 납품가격제도의 취지는 본사가 하청업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실제 원가를 산정하고 일정 시차를 두어 납품가격과 연동시킴으로써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원가절감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처음에는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차츰 협력업체의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원가절감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경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요타자동차 상생경영의 또 다른 특징은 협력업체가 도요타자동차 이외의 다른 자동차업체에도 자유롭게 납품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49년 도요타자동차 부품사업부에서 독립하여 창업한 자동차부품업체 덴소가 있다. 덴소는 창업 초기부터 도요타자동차 이외의 기업과도 활발하게 거래를 진행하여 세계 3위 자동차부품업체로 성장했으며, 현재 전체 거래의 50% 이상을 도요타자동차 이외의 기업과 진행하고 있다. 상생경영은 하청업체의 자율성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다른 기업과도 거래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 윤리경영 실천 사례

### 3. 중소기업의 자구책 마련과 보호 장치의 필요성

1970년 토요타자동차는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협력업체에게 일정 기간을 두고 납품단가를 일정 비율로 인하하도록 유도하면서 최초로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등장했다. 토요타자동차는 협력업체의 기술능력 향상에 따른 실제 원가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협력업체들이 낮춰진 원가를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납품단가인하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납품단가인하가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행은 계약기간 중 일률적으로 납품단가인하를 강요함으로써 하청업체 직원들의 고용증대 및 협력업체 성장을 가로막은 가장 큰 악습 중 하나가 되었다. 결국 토요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납품단가인하에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펼치는 등 필사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했고, 이는 토요타의 협력 및 부품업체들이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어 오늘날 협력업체들이 본사와 동등한 계약적 지위를 갖게 됐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보호하는 제도의 마련은 일본 뿐 아니라 중소기업 강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2005년부터 유럽연합은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카르텔 금지 지침을 마련했고, 독일도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로 경쟁제한금지법(GWB) 제20조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 4. 지역사회 공헌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아름다운 재단’ 과 함께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45명에게 1인당 연간 2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도요타 꿈 더하기 장학금 >

2003년부터 시작된 ‘T-TEP’ 이란 이름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도요타 본사, 한국도요타, 딜러 등이 자동차 기술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한다. 2004년부터는 서울대국제대학원과 함께 ‘아시아와 세계’란 이름의 공개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또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수익금을 전액 자선기금으로 사용한다. 매년 ‘렉서스 자선골프대회’를 열어 2000년부터 지금까지 1억5300만 원의 성금을 ‘도요타 암 연구기금’에 적립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국도요타 임직원들은 매월 경기 성남의 노숙자센터인 ‘안나의 집’에서 무료급식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을 통한 ‘도요타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기업, ‘도요타자동차’  
국민권익위원회 윤리연구소,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상생경영’  
도요타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동아닷컴, [우리 함께] 도요타車 성장 비결은 ‘상생경영’

## 청렴 위반 사례

### 1 기상장비 부품교체 사업 부당 추진

2012년 기상장비 부품교체 사업 담당과장인 A는 타 사업이 추진 지연으로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부품교체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하여 예산의 목적 외로 부품교체 사업을 추진한 결과 14억원의 예산을 낭비함

시사점 :

- ① 필요성 없는 부품교체 사업을 예산의 목적 외로 추진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2 출장일수 과다 산정 및 여비 부당 수령

기상청 직원 A는 2012~2013년 기간 중 총 4차례에 걸쳐 여행일수를 과다 산정하여 출장을 갔고, 출장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사적인 용무를 보았으며, 여행일수 과다 산정 기간에 대한 여비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수령함

시사점 :

- ① 출장목적이 달성된 이후 사적인 용무를 보며 출장비를 지급받고, 여행여비를 과다 수령하는 것은 공무활동을 위한 출장비와 여행여비 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지식마당

### [반부패 국제 동향] 미국 해외부패 방지법(FCPA)

#### 1. 개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부패 규모를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약 2조 달러) 정도로 추산한다. 부패는 그 속성상 가장 은밀한 부정 유형 중 하나이며, 부패를 통해 얻는 사인 간의 이익에 비해 사회적 손실(특히, 사회적 신뢰 훼손)이 심각해 글로벌 각국의 반부패 규제에 대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반부패 규제는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투명성, 뇌물 금지 및 경제활동 선진화를 강조하며,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 기업에도 기업 차원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국제기구 간 반부패법 집행을 위해 공조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글로벌 기업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할 지역의 반부패 법률과 각종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반부패 프로그램 분야에서 취약함을 드러내어,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부패 위험의 사업 영향을 판단하고, 현재 회사의 반부패 경영 수준과 ISO 37001 요구사항과의 간극을 파악한 후 글로벌 수준의 반부패 경영 체계 달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 2. 글로벌 반부패 규제 강화

IM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부패 규모는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고, 이러한 기업 및 사회의 상당한 손실로 인해 국제적으로 부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로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1977년)을 제정했다. 그 이후로도, 1997년에 OECD 뇌물방지 협약(Anti-bribery Convention), 2003년에 유

엔반부패 협약 채택(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2010년에 영국 뇌물 수수법 제정(UK Bribery Act), 2016년에 국내 청탁금지법 시행, 그리고 작년 2017년에 프랑스 샤펕 2법 시행 등 세계적으로도 반부패 및 뇌물방지 관련 규제를 강화시키는 동향을 볼 수 있다.

#### FCPA 위반 관련 벌금 상위 5개 기업

No	기업명	국가	발생 연도	벌금액(백만 달러)
1	지멘스	독일	2008	800
2	알스톰	프랑스	2014	772
3	KBR/해리버턴	미국	2009	579
4	BAE	영국	2010	400
5	토탈 SA	프랑스	2013	398

#### 위반 사례: 독일 기업 지멘스 사건

- 14억 달러의 부적절한 금품 지급
- 각국 공무원들에게 4,000건 이상 뇌물 지급
- 뇌물 은폐 목적의 회계 장부 허위 기재, 조작

⇒ FCPA의 4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8억 달러)

#### 대응 사례: 프랑스 기업 알스톰

- 2017년 6월 ISO 37001 인증

출처: www.fcpablog.com

## 지식마당

### 3. 국내 반부패 규제 동향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16년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에 따르면 한국의 CPI점수는 53점, 국가 순위는 52위로 2015년에 비해 3점이 하락하고 15등급이 급락했다. CPI 지수의 하락은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으로 평가되어 글로벌 사업 수행 시 추가적인 경영상의 비용 증가가 수반된다.

또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 1순위가 반부패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선진국 수준 제고였다. 그래서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인 국가권익위원회를 설립하고,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관련 양형을 강화시킨다며 부패 척결의 의지를 표했다.

현재 새로운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공직비리 내부고발자 보호를 보완하는 등 공직 윤리 강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 공직자와 연결을 유지하는 기업 관행을 대응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특히 제3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반부패 프로그램 적용 항목에서 최저 수준을 나타내어 해외 프로젝트 수행 시 해당 국가의 반부패법위반 리스크에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최근 대기업은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는 중이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관해서도 대처해야하는 부분이다.

### 4. 기업의 대응 방안

현재 대다수의 기업은 윤리경영 및 반부패 경영을 가이드라인 및 내부고발, 내부감사에 의존하고 있고 무엇보다 반부패 경영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 추세를 따르려면 반부패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반부패 경영 체계를 글로벌 요구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기업들은 부패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반부패 경영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안정적인 글로벌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관련 각국의 반부패 규제 강도 등을 고려한 '비즈니스 영향'을 분석해야하며, 둘째, ABMS(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반부패 규제의 국제적 요구 사항(ISO 37001)달성을 위한 회사의 윤리 경영 및 반부패 경영체계에 대한 갭 진단 및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외에도 각 기업의 관련 부서들(컴플라이언스/내부감사, 법무, 회계/재무, 인사)의 선도적 실무 참여도 필요하다.

Deloitte Anjin Review, "반부패 규제 강화와 기업의 대응" (재) 한국품질재단,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소개" 이아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손에 손잡고, 부패방지!"(2017)

#### As-Is

-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교육
- 부패 위험 식별 및 위험 요소 제거
- 내부신고자 제도 운영
- 재무적, 비재무적 지출 통제 수행

#### Impact Analysis

- 비즈니스 영향 분석 - 부패 사건 발생 시 사업부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BMS 영향 분석 - ISO 37001의 요구사항에 따른 갭 진단 수행 - 반부패 경영 고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To-Be

- 반부패 경영 체계 고도화
- 반부패 경영 시스템의 국제 인증(ISO 37001)
- 반부패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부패 사건 발생 시 기업 면책 방안 실행(외부 전문가 활용)



## Quiz

1. 다음 중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하는 전 세계 부패 규모로 옳은 것은?
  - ①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약 2조 달러)
  - ②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약 5조 달러)
  - ③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약 10조 달러)
  - ④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0%(약 30조 달러)
  
2. 다음 중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미국에서 재정된 법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 ① OECD뇌물방지협약
  - ② 뇌물수수법
  - ③ 해외부패방지법
  - ④ 링컨법
  
3. 다음 중 국내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인권위원회
  - ②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③ 국가권익위원회
  - ④ 공정거래위원회
  
4. 다음 중 기업들이 부패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부패 경영 체계 고도화
  - ② 반부패 경영 시스템의 국제인증(ISO 37001)
  - ③ 반부패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④ 기업의 관련 부서들의 선택적 실무 참여

##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①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약 2조 달러)
2. 답 ③ 해외부패방지법
3. 답 ③ 국가권익위원회
4. 답 ④ 기업의 관련 부서들의 선택적 실무 참여

## 관련 행사

### 1. Responsible Business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8



“변화의 시기 속에서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주제로 학계, 기업인들 및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 지속가능성과 책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논의

주최 : Center for Advanced Sustainable Management (CASM)

일시 : 2018년 11월 14일 ~ 2018년 11월 15일

장소 : Cologne, Germany

Topic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Sustainable Business Transformation
- Responsible Leadership
- Social Innovation
- Systemic Thinking
- Trust & Responsibility
- Positive Impact
- Change Management
- Governance
- Innovation in Leadership Education & Training
- Entrepreneurship & Intrapreneurship
- Creativity & Design
- Innovation Management
- Digitalization & Technology
- Social Engineering
- Clean Water, Air and Land
- Business Model Innovation
- Responsible Research & Publishing

<http://www.responsiblebusiness.com/forum/responsible-business-forum-sustainable-development-2018/type/location/>

##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